

문화 예술 교류 넘어 관광 활성화 연결

남원시-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문화·관광 상생협력 양해각서 체결

남원시는 19일 남원시청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문화·관광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남원시가 보유한 전통 문화와 관광자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공연예술 기획·운영 역량을 결합해 문화예술 협력의 폭을 넓히고, 이를 관광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는 관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이자 전통 소리문화와 고전문학 자산을 품은 대표 문화도시이자 관광주인 중심의 역사문화 자원과 지리산권의 풍부한 자연생태 자원, 요천 수변과 합파우 아트밸리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관광기반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연과 전시, 기획 콘텐츠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관소리 등 전통 소리문화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협력, 문화행사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공동 홍보와 마케팅, 문화·관광 분야 공모사업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연예술 콘텐츠와 남원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공연 관람객의



남원시는 19일 남원시청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문화·관광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남원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남원의 전통문화 자산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공연예술 역량이 만나 문화예술 교류를 넘어 관광 활성화까지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전통과 축제, 공연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관광도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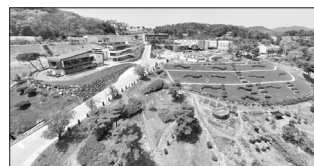
순창 설랜드, 힐링 관광지 위상 입증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순창군 설랜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선정하는 '2026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의 대표 힐링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설랜드는 2024년에 이어 재선정되며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은 관광객의 건강과 치유, 휴식을 아우르는 고품질 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 웰니스 관광



산업의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평가는 △푸드 △스테이 △뷰티 △스파 △자연치유 △힐링 △명상 △한방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선정지 88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내외 홍보를 비롯해 관광 상품화, 맞춤형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상품 판촉 등 다양한 전략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설랜드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순한 관광을 넘어 심신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이 주요 강점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설랜드는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요가, 명상, 치유 프로그램, 건강 식단 체험 등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아영면 울동경로당서 '스마트 경로당' 준공식

남원시는 19일 아영면 울동경로당(비대면진료 거점경로당)에서 어르신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어르신 행복 공간 스마트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하고, 스마트 경로당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경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위한 어르신 행복 공간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 복지서비스의 운영 모습을 직접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준공식은 현장 참석자뿐 아니라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관내 경로당에도 실시간 송출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제 비대면진료 서비스 이용 어르신 인터뷰 영상이 상영됐으며, 스마트 경로당이 지역 돌봄과 공공의료를 연결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은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과 함께 관내 7개 기업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협력

임실군-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친화일촌기업 7개소와 협약 체결

임실군과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및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임실군(군수 심민)은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허명숙)과 함께 관내 7개 기업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내대식품(주)을 비롯해 임실치즈산업협동조합, 정드림노화인복지센터, 관촌원광수양원, 임실중앙요양병원, 이플영농조합법인, 무지개영농조합법인 등 총 7개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이번협약을 통해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 및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채용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구직자 우선 알선 및 사후관리, 인턴채용지원금 최대 400만원, 기업환경 개선지원 최대 500만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인턴기간 3개월동안 월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인턴종료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추가지원금 80만원이 지원된다.

취업자에게도 취업장려금 60만원이 지급되는 등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와함께,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가족친화 인증 컨설팅, △재직여성 대상 직장문화 교육, △조직문화 개선 코칭 등 기업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기업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여성친화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와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여성 고용확대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정책 설명회와 공인노무사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컨설팅도 함께 진행돼 참여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성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 바이오테스팅센터' 25일 개소... 통합 지원 운영

남원시가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남원 바이오테스팅센터가 오는 25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원 바이오테스팅센터는 화장품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시험검사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한 피부임상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지원 거점이다.

센터는 개관에 맞춰 국내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생 프로모션 을 전격 실시, 개관식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시험검사 수수료를 50% 할인하며, 기능성 및 일반 화장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

는 피부임상 수수료 30% 감면 또는 피부자극시험 1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센터는 식약처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 분석 및 피부 측정 장비를 완비했으며, 특히 전문 연구진의 밀착 컨설팅을 통해 단순 분석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해결 솔루션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시험인증과 공동 R&D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4-H연합회 공동과제포 조성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 4-H연합회 회원 27명을 대상으로 지사면 급령리에 있는 공동 과제실습 포장(1,963㎡)에서 영농과제 일환으로 더 나은 감자 재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과제 포장을 조성했다.

공동과제포 활동은 4-H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포장을 조성하여 작물 재배를 실천해 봄으로써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등 재배 노하우를 익히고, 영농정보를 교환하며,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등 청년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동과제포장은 봄감자 재배 후 같은 포장을 콩 재배를 함으로써 감자와 콩 이모작을 통한 생육과 수확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작업의 효율성, 수량 증대 여부 등 다양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영농 시범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공동과제포에서 수확한 농작물 판매수익금 일부를 연한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 왔으며, 올해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5년 연속 암관리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순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지역 암관리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수검률과 암 예방 홍보, 우수사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순창군은 2021년 최우수기관, 2022년 우수기관에 이어 지속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순창군보건국의료원은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 무료검진(폐암·전립선암)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